

반대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길이요, 구원을 얻는 비결입니다

구원의 규칙은 각자가 하나님 마음을 가져 천당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구원을 하고 구원을 안 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지만 구원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각자가 이 길을 가는 것이지 누가 이끌어 주고 누가 구원을 시켜주고 누가 하나님을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창기에 이 길은 마음으로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천당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천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각자가 하나님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 들어갑니다.

다만 구세주가 할 일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천당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할 일은 천당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갖고 인간의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영생길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천치라야 못 가는 거지 좀 웬만큼 보통 사람의 지능을 가지면 이 길은 충분히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반대생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반대생활 하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야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인간의 생활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대생활의 일종으로 제단에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그는 꼭 죽습니다. 영생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야 하나님이 되고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부득이 제단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안 나오게 되면 그는 하루 빠지는 날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빠진 사람은 적어도 3년을 계속해서 나와야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빠져서 3년 동안 계속 또 나오다가 또 하루 빠지면 또 3년이 보태지니까 6년 동안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제단에는 매일 나오는 것이 천당 가는 길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으리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를 하루라도 안 드리면 그 사람은 영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사 신앙촌의 오만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 할 때에 이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청년들이 돌을 던졌습다. 돌이 이 사람 가슴에도 맞고 경강이에도 맞고 그 돌이 어깨에도 맞고 안 맞은 데가 없습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돌이 막 날아오는 가운데에도 그대로 오만 제단을 향해서 올라가



구세주 조희성님

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루라도 빠지면 구원이 안 되고 하루라도 빠지면 하나님한테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도 이 사람이 밀고 올라가니까 청년들이 이 사람을 담요로 싸 돌을 말아서 소나무 많은 곳에서 이 사람을 깨 패듯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깨 패듯 했지만 나는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오만제단에 예배드리기 위해 가면 신앙촌 청년들이 마귀라고 돌팔매와 몽둥이로 때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담요에 돌돌 말아서 맞으니까 그 담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사람 몸에는 그 몽둥이로 때렸지만 몸에 닿지를 않았습다.

이것은 사실로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는데도 다친 데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과 같은 사실입니다. 그랜,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귀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미워했지만 어느 땐가는 이 사람이 예배를 보고 내려오는데 영모님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차를 세워서 나한테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 새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마귀새끼로 알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다. 영모님이 저렇게도 사랑하고 영모님이 저렇게도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마귀새끼로 여기고 때리고 그랬는데, 큰 죄를 저구 나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 영모님하고 이 사람이 대화하는 광경을 본 사람들이 조중위는 마귀새끼가 아니라, 조중위는 영모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중위를 마귀새끼로 여기는 사람이 마귀야. 이렇게 소문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모님이 이 사람을 키운 것은 소사 신앙촌 짓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 연결을 모르고 다녔지만 이 사람민은 늘 생수연결이 되어 입안사부터 뱃속까지 찬물이 팔팔 팔팔 내려가는 것처럼 체험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다. 그러니까 날로 날로 이 사람의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말씀과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기라는 말씀은 평생 생활 중에 실천 속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이 사람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오만 제단까지 올라가는 길의 눈을 전부 쓸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눈을 쓸게 되었습니다. 매일 눈만 왔다 하면 눈을 누가 쓰니까 신앙촌에 몇몇 청년들이 누가 눈을 쓸고 치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깨끗히 쓰는 것을 보고 소사 신앙촌에서 이 사람을 마귀새끼인 줄 알고 마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야!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마귀가 아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신앙촌에 있는 주민들한테 존경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촌에서 무슨 사건만 나면,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사람 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을 전부 잠재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실과 인격이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평생시 생활도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말씀과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기라는 말씀과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이 사람 마음과 사상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2003년 4월 16일 말씀 중에서



전과 5범 사기꾼을 개과천선시키다

인간은 원래 악한 사람이 없으며 누구든지 참된 교육과 은혜를 입으면 개과천선 될 수 있다

중학교 시절, 친한 친구의 죽음을 통하여 인생의 본질적 의문인 "사람은 왜 죽는가?"하는 문제에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교회에 나가서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성경 말씀과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이후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선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자기와의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밝혔다. 우연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애를 쓰고 기를 쓰는 생활로 일관했다. 한창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기를 그야말로 순진하고 착실하게 보냈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거짓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상대방 말이라면 고분고분 잘 따랐다.

그러한 청소년기를 지나 11년간의 오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게 된 것이다. 아시다시피 군 생활이란 것이 규율과 기강에 따라 철두철미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따르는 삶으로 개인의 자유와 행동이 제약된 엄격한 조직사회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런 조직사회의 틀에서 오랜 장교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기게 되니 이렇게 저렇게 사기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회생활을 갖 시작하면서 무슨 사업을 해보려고 하였다가 퇴직금을 봉

사기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몇 년 뒤 이 사람을 사기를 친 사람을 우연히 막다른 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금방 얼굴색이 창백해지면서 어쩔 줄 몰라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이었다.

그때 이 사람은 차분한 어조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그렇게 민망해할 필요 없습니다"고 안심을 시킨 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식사를 아직 안하셨다면 우리 함께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라고 말을 건넌 후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같이 마주보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건네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그 사기꾼은 이리다 경찰을 불러 잡아넣을 속셈으로 이런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계속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간 잘 지냈느냐?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짓을 했겠느냐"며 이해시키고 안심시키면서, 그 당시 이사람 역시 너무 어려운 처지라 아주 난처했으나 지금은 발등의 불은 끈 셈이니 그 돈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의 일이니 그만 잊고, 지금은 갖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진정어린 말을 건넸다.

그리고는 "정히 갖고 싶으면 혹여유가 될 때 주세요요. 당신이 쓴 것이나 내가 쓴 것이나 매한가지니까 너무 큰 부담감은 갖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



막다른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기꾼을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 옹서해주다

려 그 사람 입장에서 서서 말해 주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은 황송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서서히 그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조금 마음이 되었는지 과거에 자기의 전직이 중학교 교사였으며, 어쩌다가 사기 전과 5범의 불명예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형님과

같은 인격자는 처음 만났습다."라며 이후부터는 형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서로 얘기가 오고가고 식사를 마친 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헤어졌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느닷없이 돈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왔다. 이 사람은 즉석에서 그 돈을 안 받겠다고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 며칠

사이에 어디서 갑자기 그 돈을 벌어들였는 리가 없으며, 분명히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가지고 온 돈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돈을 마련하라고 애를 많이 썼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여 가슴 쓰라린 고통을 받아야 할 테니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지금은 당장 그 돈이 없어도 살아있는 데에 지장이 없으니 그런 부정직한 돈은 받지 않겠어요"라고 극구 거절했다.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사기를 당한 쓰라림을 한 번 맛보았으니 나로써 끝나야지 또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야 되겠어요? 꼭 그 돈을 갖고 싶으면 당신이 열심히 구멍가게라도 해서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직접 돈을 벌어들여주세요."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회한과 감동의 눈물을 흘린 후, 그 돈을 도로 갖고 갔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정말 구멍

가게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았으며, 그 뒤 조그만 공장을 세워 일약 몇몇한 회사 사장으로 번모하였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인간은 원래 악한 사람이 없으며 누구든지 참된 교육과 은혜를 입으면 개과천선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제가 되는 일이었다.

평소에도 이 사람은 학생들이나 교인들에게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하면 그러한 일을 계속 고민하고 아까워서 속상해 하지 말고 '얼마나 없으면 그와 같은 짓을 했겠느냐? 내가 쓴 것이 내가 쓴 것이다.'라고 생각을 돌려 먹고 잊어버린 뒤, 이제라도 다시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노력을 하면 된다고 했다.

사실 새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마음 편히 살고 돈을 버는 것이 현명하지, 돌아오지도 않을 것을 계속 속상해 하고 애태우게 되면 자신의 피만 더욱 탁해지고 썩어서 늙고 병들게 되며, 결국 자신만 괴롭고 건강을 해치고야 마는 것이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